

## 변화속의 안정: 새로운 한·미 관계의 모색

W. Anthony Lake

본인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미관계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선 지나온 과거에 관해 몇 가지를 짚어 보고자 한다.

본인의 마음 속에는 지난 4년동안 한국의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간직한 한국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자리잡고 있다. 본인은 한·미 양국 대통령이 제안하였던 4자회담 추진을 위하여 유종하 외무장관과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협의를 한 적도 있는데, 동료였던 유종하 장관의 업무능력과 인내심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우리에게는 서로의 우정을 다지는 많은 기회가 있었다. 특히 한·미관계에 대한 서로의 믿음과 김치의 맛을 나누었던 것이 기억난다. 또한 본인은 어떤 미국인일지라도 찬사를 보낼 한국 청자의 우아하고 신비한 빛깔을 흠모한다. 김치를 좋아하는 본인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빛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미래로 눈을 돌려보면, 현재 아시아는 커다란 변화의 와중에서 세계 다른 지역들보다 안정을 더 유지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전통적 역학관계의 흐름이다. 향후 중국의 부상이나 한반도의 통일이 실현될 경우 아시아의 전략적 전망은 불확실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전환기에 우리는 평화보존의 필수적 요소인 세력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냉전은 종식되었을지 몰라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물론 군사력의 중요성도 여전하다.

두 번째 변화는 새롭고 다루기 어려운 것으로서, 에너지에서부터 식량공급 그리고 치안과 국경통합에 이르는 모든 것에 대하여 세계화가 미친 영향이다. 우리는 안정을 얻기 위해서 테러, 핵확산, 국제범죄 등의 위협에 맞서 싸워야 한다. 어떤 정부도 독자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함께 뭉쳐서 대응해야 하며, 국제규범에 적합한 새로운 규칙들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한다. 앞으로의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상태이다.

협력이 가능하고 세력균형이 유지되어야 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정이 가져다 주는 안보만이 각 국가들의 기본적인 공통가치인 경제적 번영을 증진시킬 수 있다.

본인은 낙관론자는 아니지만 새로운 시대에 접어든 한국의 장래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다. 강대국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위치때문에 몇 세기에 걸쳐 고통을 겪었던 한국은 이제 변화의 시대를 유리하게 헤쳐나갈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한국은 갈등과 정복의 정점에서 벗어나 이 지역의 경제와 정치의 통로로서 괄목할 만한 성장과 가능성을 지탱하는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비전(vision)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두 가지의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첫째, 한국은 세계화의 조류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를 재조정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통일에 대비하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어떤 경우이든 한국은 안정된 상태에서 변화를 수용해야 하고, 또 경제적·외교적 어려움보다는 심리적·정치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 다만 본인은 여러분의 노력이 이루어 낼 결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도전과 기회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리고 본인은 지금까지 한국인과의 대화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제 한국경제의 미래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힘든 노력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으므로 특히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서울에 오기 직전, 본인은 세계 유수은행의 리더 중 한 사람과 한국경제에 관해 장시간의 대화를 나누었다. 본인의 생각과 달리 그는 한국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다. 한국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한 그의 관점은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큰 반향을 불러 일

으킬 만한 것이었다.

여기 계신 한국경제에 정통한 분들과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본인은 한국에 대한 비관적 전망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미 몇몇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본인은 한국에 투자하고 싶다. 본인 뿐만이 아니다. 외국 투자비율의 한계를 20%에서 23%로 올리기로 한 최근의 결정을 보고 한국으로 몰려드는 많은 외국 투자자들을 보라. 그리고 많은 한국의 젊은 이민자들이 이제는 반대로 조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 되돌아오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한국이 지닌 경제구조의 건실함과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서의 가능성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한국의 생산규모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전체 3분의 1 수준에 이른다. 한국에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기업과 세계 제2의 철강 회사가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인은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최고급의 호텔을 경영하고 있고, 폴란드에서는 자동차, 스코틀랜드에서는 컴퓨터 칩, 미국에서는 가전제품, 카자흐스탄에서는 전자통신 회로망을 생산하고 있다.

물론 부정적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 굴지의 철강기업이 파산함에 따라 금융위기가 초래되었고, 이것은 노동계의 불안과 실업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무역과 재정적자가 향후 성장율과 세입에 미칠 영향은 자명한 것이다. 만약 미국경제가 현재의 한국 수준처럼 6%의 GDP 성장과 4%의 실업율을 유지한다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사회(FRB)의 의장은 아주 좋아할 것이고 클린턴은 종신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급속한 발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적 곤경으로 인하여 위압감을 느낄 지도 모른다.

좋은 소식도 있다.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한국의 경기침체가 바닥을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곧 한국정부의 관료들이 공개적으로 금지되었던 골프를 다시 허락받게 될 정도의 상황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부분적으로 현재의 문제를 낙관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물가는 내림세로 접어들었으며 일본 엔화의 강세로 인해 한국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세계무역은 증가추세를 나타내며 유가(油價)와 수입품목의 가격은 하락하거나 안정

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본인의 낙관은 한국 국민에 대한 존경심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국인들은 2천년 동안에 걸쳐 창조정신과 헌신 그리고 강건함으로 자신들의 역경을 극복해 왔다. 수백년 전에 이미 한국인들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측우기, 철갑선,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도자기 등을 만들어 냈다. 오늘날에도 철강,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기술력과 품질수준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학교와 대학은 헌신적인 자세로 교육을 담당해 왔으며, 이 점은 유교권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반복되는 외세의 침략과 전쟁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다시 일어나서 국가주권을 되찾고 국가를 재건하였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만에 전쟁의 참화를 입은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수여국으로, 그리고 세계적 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 모든 것은 군사적 갈등과 위협이 첨예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경제회복의 열쇠는 한국인들이 경제구조 개혁을 기꺼이 단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본인은 한국경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계 여타 국가들이 번영을 위해 했던 것처럼 한국도 이와 같은 개혁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화는 하나의 슬로건에서 거부할 수 없는 현실로 변하고 있다. 한국의 OECD 가입은 발전의 이정표인 동시에 좀더 깊이있는 개혁, 특히 금융과 자본시장의 개혁에 대한 상징인 것이다. 김철수씨가 사무차장으로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주도하에 한국은 전자통신 부문의 자유화 협정에 조인하였고 정보기술 분야의 관세를 대폭 철폐하였다. 또 한국은 금년부터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였으며, 지난 3월의 노동법개정 결정은 경영자들의 운신 폭을 넓혀 주었고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적 기준에 더욱 근접시켰다.

한국의 세계화 성공여부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7번째 통상교역 국가이며 5번째 수출시장이고, 미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수출대상국이다. 한국과 미국은 각각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새로운 일자리와 성공의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자유화가 지속된다면 한·미간의 경

제관계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미간의 마찰이 해소되고 한국과 세계경제와의 접촉은 증대되어 전략적 상호관계가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그 활력을 되찾고 깊이를 더하여, 한국은 한반도 통일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1997년에는 선거로 인하여 개혁추진이 가속되지는 않겠지만 몇몇 분야에서는 계속될 것이다. 한국의 은행들은 아시아에서 가장 비효율적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금융개혁이 중요하다. 한보와 삼미의 부도사태는 한국 금융부문의 불안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올해초 금융개혁 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개혁안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개혁은 투자자유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은 앞으로의 통일비용을 고려해서라도, 더 이상 최저의 외국인 직접투자비용을 보유한 아시아의 고성장 국가로 남아서는 안될 것이다.

본인은 미국이 계속해서 다른 분야의 자유화도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정부는 전자통신 분야에서 미국의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한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값싸고 품질좋은 상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에 대한 수입장벽을 일부 제거한 1995년의 협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자동차 판매는 1996년의 4천대 수준에서 더 늘지 않고 있다. 외제차를 구입하는 한국 소비자들이 세금청구서보다는 교통범칙금을 더 걱정하는 때가 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미국 농산물의 4번째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수출업자들은 임의적인 검사와 통관절차에 계속 부딪치고 있다.

서울에서는 미국인의 이와 같은 지적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미국의 통상압력과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의 증가가 강한 연관성이 있음을 가끔 여론조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한국인이건 미국인이건 우리들 모두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따라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세계경제의 변화는 지난 과거의 관습과 사고방식을 몰아내고 있다. 미국에서의 무역논쟁은 우리들 스스로가 매우 어려운 조정작업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규를 바꾸고는 있지만, 관행을 바꾸지 않는 한 세계화 작업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한국은 시장폐쇄가 아닌 시장개방에 의해 발전해

왔다. 한승수 전 재정경제원 장관은 지난 봄 워싱턴에서 “일부 한국인들이 생각하듯이 WTO, OECD, APEC에 참가하는 것을 한국이 국제적인 지위와 인정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라고 여겨서는 안된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은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을 통해 이익을 증진시켜야 한다.” 라고 언급했다.

오늘날 한국과 미국은 아시아 지역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좀 더 개방적인 세계무역체제를 형성함으로써 증가하는 이익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세계화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규칙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고용에서 성장까지, 우리의 변형은 단순히 국경을 뛰어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경제적 조건에 의해 더욱 좌우되고 있다. 민간자본의 흐름은 통화를 방어하려는 중앙은행의 준비금 수준을 벗어나 버렸고, 무역거래는 개별 정부의 범주를 벗어나 점점 더 단일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국가도 강력하고 새로운 세계경제의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근본적인 개혁없이 한국이 현재의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증하는 고통으로 계속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경제규칙을 함께 만들고 지킨다면 세계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세계경제의 추진력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한국이 세계화를 지속해 나가면 한승수 전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아주 빠른 기간내에 신흥공업국에서 완전한 선진국가로 전환하는데 성공하는 첫 번째 국가” 가 될 수 있다. 본인은 한국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안정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결국 안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안정을 통하여 통일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다. 한반도는 세계적인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2천년동안 거의 9백 번에 걸친 침략과 전쟁을 경험하였다. 이제 탈냉전 시대가 전개되면서 한국은 다시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어느 누구도 이 변화가 가져올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다가올 21세기의 한반도는 과거와 달리 아시아의 안정과 진보를 가능하는 열쇠가 될 것이며, 실제로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거의 없다.

한국이 이룩한 엄청난 발전에 경의를 표한다. 이제 한국민은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해야 하는 불확실한 자리에 서있다. 북한은 차원이 다르다. 본인은 북한이 다음 세기까지 존재해 있을지도 의문이다. 북한의 어린이가 굶주리고 있는 비참한 광경은, 1인당 군사비를 세계 최고로 지출하고 있는 북한체제가 자국의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소련의 지원이 없어지고 무역거래도 막히자, 북한경제는 빈사상태에 빠져 버렸다. 북한의 호전적인 돌발성은 관심을 불러 일으켜 왔으나, 북한 자체의 전략적 목표성취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더 나아가 돌이킬 수 없는 정치·경제적 쇠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40여년에 걸친 김일성 주체사상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결국 자립(self-reliance)에 도달하기는 커녕 자멸(self-destruction)의 길에 접어든 상태이다. 황장엽은 지난 7월에 “국제환경에서의 생존수단은 개방이며 폐쇄정책은 파멸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결코 개방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지면 현재의 독재체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김정일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김정일 체제가 어떻게 붕괴하든 통일이 이루어지겠지만, 통일은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을 수반할 것이다. 북한의 백만 군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무력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국지전을 감행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반군으로 분열될 것인지 예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유럽의 마지막 폐쇄왕국이었던 알바니아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난민들은 국경과 해안을 통해 인근국가로 탈출할 것이다. 북한 사회·경제 체제의 붕괴는 현재의 기아상태보다 더 깊은 인간성의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미 수백만의 북한 주민들은 식량, 교통, 의료 및 에너지와 같은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통일의 전망 그 자체도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통일과정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문제인 것이다. 독일 통일의 경우가 좋은 교훈이다. 한국은 구동독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굶주리고 규모가 큰 북한인들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동독의 인구는 서독의 4분의 1밖에 안되었지만 북한의 인구는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게다가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동독의 소득수준은 서독의 3분의 1이었지만, 현재 북한의 1인당 소득은 한국의 10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단순추정을 하더라도 통일비용은 수천억 달러에서 수조 달러가 소요될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의 2년치 GDP 액수에 상당한다. 그러므로 많은 한국인들이 통일의 전망을 희망보다는 악몽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이다. 그리고 비무장지대(DMZ)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2백만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게 할 평화를 잇어서는 안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안정없이는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다. 통일된 한국에 미군이 계속 주둔할지 여부는 안정과 관련하여 논쟁의 여지가 가장많은 부분이라 여겨진다.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주요 목적이 안정도모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왔지만, 중국은 미군이 바로 인접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달가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던지 간에 미국은 동맹관계와 조약을 계속 유지할 것이 확실하다. 이 지역은 전략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은 태평양 지역에서 불신을 몰아내고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출발로서, 지역안보와 관련된 대화의 장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통일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연착륙(soft-landing)’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붕괴하기를 기다릴 수도 없지만, 또한 북한이 붕괴되도록 몰아세울 수도 없다. 북한체제가 부드럽게 안착할수록 통일비용도 낮아진다. 이것은 단순한 논리이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공격위협에 대해 지속적으로 함께 대응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실제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한



다. 이러한 전략은 ① 강력한 전쟁억지력의 유지, ② 북한 핵의 동결과 1994년 기본합의서의 이행, ③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평화를 향한 외교적 노력의 경주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4년전 첫 번째 해외순방 때 한국의 국회를 방문하여 “우리는 안보가 항상 우선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DMZ에서 한국 전우들과 함께 주둔하고 있는 3만 8천명의 미군 병사들은 말 그대로 반 세기전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미국인의 후손들이다. 한·미동맹은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해 지탱되고 있으며 한국은 주한미군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3년간 10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군대에 대해 어떤 공격이 감행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며, 공격을 감행한 집단은 큰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 자명하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은 질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해둘 점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전쟁을 억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확고하면서도 조용한 해결책을 가지고 대응해 왔다. 북한이 국제적 안전통제를 벗어나 핵개발을 시도하였던 때는 본인이 대통령 안보보좌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맞이한 가장 위험한 위기상황 중의 하나였다. 한·미 양국은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조치를 단계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양국간의 견고한 동맹관계가 이 위기를 진정시키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 하였다.

물론, 한·미 양국의 결단력있는 외교의 결과인 1994년의 기본합의서가 해결책이 되었다. 이 과정은 연착륙을 위한 전략의 두 번째 요소와 관계되어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믿는 한,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협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처리 시설에서 연료봉을 꺼내려 했을 경우, 우리는 일부 미국 인사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큰 재앙을 부르는 전쟁이 촉발되었거나, 아니면 북한이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하고, 북한이 핵연료를 이용해 핵무기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강한 의지로 협상에 임하였고, 이러한 우리의 결정은 북한 핵개발계획의 동결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IAEA의 감독하에 사용연료의 봉인작업은 80%가 달성되었고, KEDO가 제공하는 경수로 재처리시설 건설이 시작되었다. 물론 또 다른 중요한 소득도 있다. 수백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북한지역에 들어가게 되었고 국제전화선도 개설되었다. 경수로 건설계획은 남·북한간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으며, 북한을 외부세계에 개방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전부는 아니다. 기본합의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 경수로 건설에는 추가비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경수로 건설비용은 차치하더라도 북한의 폐기연료 처리와 기존시설을 해체하는 데 드는 수억 달러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본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상대적으로 적은 중유 공급비용을 가지고 부담스러워 하는 것에 대하여 당황스러웠다. 반면에 기본합의서는 미국의 여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는 부시 행정부 때부터 그러하였으며, 기본합의서 이행에 대하여 한·미 양국의 강력한 국내적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

전략의 세 번째 요소는 외교와 관련된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제안했던 4자회담은 평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인은 4자회담이 좀 더 진척되지 않는 것이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의외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4자회담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문제가 기복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하튼 북한은 4자회담을 계속 지연시키거나 4자회담에 조건을 결부시키는 태도가 자신들의 입장을 더 악화시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북한은 한국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만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커다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남북대화는 1991년 남·북한이 직접 서명한 기본합의서의 중요한 결정사항이기도 하다. 그리고 미국도 북한과 핵문제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남북대화 재개가 협정이행의 중요한 요소임을 분명히 하였다.

미국도 또한 기본합의서에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 본인은 여기에서 한 가지 사항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미·북한간의 관계에 진전이 있더라도, 미국은 단순하게 남·북한간의 정직한 중개자(honest broker)로서의 역할만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중립적이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을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며, 이러한 사실은 결코 희석될 수 없다. 동시에, 미국에게 있어서는 미·북한관계 정상화의 진전이 실종 미군의 사체발굴이든, 중동에 대한 미사일 판매 중지이든 간에 중요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이 협상방식을 바꾸기 전까지는 미·북한간에 큰 진전이 없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외교관 망명 및 핵협상처럼 서로 관련없는 사항들과 연계시키는 것을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된다. 북한이 협상이 끝날때까지 타협하지 않고 끈질기게 끌고 가는 협상전술은 허세일 뿐이며, 나약함의 표시이다. 북한은 진지한 협상을 통해서만 존경과 결실을 얻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외교전략의 일부로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의 경제관계도 구축해야 한다. 우리의 지원이 북한의 억압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한편, 단기적 폭발성이 있는 위험요소들을 줄이면서 앞으로의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기근만이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다. 재건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피폐된 도로, 상수도, 발전소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국민들을 굶주리게 하는 정권에 대한 원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찬성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인들의 하루 평균 영양섭취량이 6백에서 7백 칼로리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수년동안에 걸친 모욕행위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적십자(KRC)가 올해 20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미국인들은 경의를 표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약 17만 톤의 식량을 공급하였다.

우리는 다음의 3가지 조건하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 정권에 대한 기한없는 지원은 피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식량공급을 앞으로 몇 년간 한정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의 공식적인 정책이다. 둘째,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지렛대로 이용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식량지원과 다른 분야의 협상을 연계시키지 말아야 한다. 셋째, 지원식량이 북한 군대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식량분배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식량지원은 우리의 이상과 현실에 부합되지만,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북한이 우리의 선의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은 단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경제 전체를 재건하는 작업을 함께 하고자 한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과 북한이 여타 분야에서도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대북제재 완화와 경제지원을 성사시키는 지름길이다. 동시에 우리는 북한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같은 국제기구와의 관계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자급자족적인 통제경제 체제를 종식시키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통일비용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다.

정확한 비용계산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의 상황을 예상할 수 있으며, 한반도는 외부세계로 눈을 돌려야만 진정한 평화, 번영, 그리고 단일성을 성취할 수 있다. 한때 한국인들은 내부로 눈을 돌려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찾고자 한 적이 있었다. 18세기의 시인이자 정치가인 홍용호는 그의 작품 ‘기러기 여정’ 에서 “여기 너를 위한 곳, 우리의 푸른 대지, 태양이 처음 내려 앉고, 별들이 보살피고 하늘이 돌보는 곳. 어디를 가겠는가, 여기 이 땅에서 너의 자리를 찾아라.” 라고 하였다. 본인은 미국에서도 외부에 대해 배타적이고 회의적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뉴잉글랜드 출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서를 이해할 수 있다. 랄프 왈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은 뉴잉글랜드가 배출한 위대한 사상가인데 그는 “자립”(Self-Reliance)이라는 수필을 쓴 작가로도 유명하다.

한국에게 건전한 자립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미국내에서도 전세계에 대한 미국의 개입 정도와 본질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홀로 동북아 지역이나 전세계의 안정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한 나라도 없다.

본인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건설한 국민성과 굽힐 줄 모르는 끈기를 지니고 있으며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도 솔직하게 이야기 하면 한국에 대해 낙관적이다. 왜냐하면 한국이 진정으로 두려워 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 그 한 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인은 한국과 미국이 변화하는 세계에 함께 맞서 나갈때, 미국이 한국측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더 낙관적이다.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그렇게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에게 이익이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 질의 · 응답

**질문** 북한의 경수로 핵발전소 건설비용의 상당 부분을 한국만 부담하는 것은 다소 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에 대해 많은 한국인들이 공감하고 있다. 미국도 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당신의 견해는?

**답변** 이것은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이러한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토론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본인은 원칙적으로 경수로 건설비용을 한국이 혼자 부담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이것이 KEDO가 의도하는 바이다. 물론 여러분들은 “원칙적인” 동의라는 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것이다. 분담문제는 단순히 현재의 비용만을 문제삼을 성질이 아니며, 비용분담의 구체적인 비율은 계속해서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할 성질의 것이다. 경수로 시설 그 자체 뿐만 아니라 폐기연료의 처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기존시설 철거 등과 같은 장래의 비용이 더 많이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을 더 지적하고 싶다. 먼저 이 문제의 대부분은 한국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의 이익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미국도 상당한 관련이 있으며 또 비용도 분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담비용을 산출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문제이며 한국이 이 계획의 수행과정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은 KEDO를 통해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KEDO에는 EU를 포함한 수십개국어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은 일본 등 여타 국가들과 함께 분담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예산편성 시기를 맞이하여, 한국의 미래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이 일에 관여해 온 미국 인사들은 현재(올해에는 잘해 왔지만) 뿐만 아니라 장차 사용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의회에서 정말 어려운 투쟁을 하고 있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할 것이며, 클린턴 대통령도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긴밀한 협의와 공정한 비용분담 조정 작업을 거쳐, 가능한 최선의 결정을 의회에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해득실이 확실하고 우리의 이익과 분명히 관련이 있으므로 결국 통과될 것이다. 본인은 한국이 혼자 이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전제에 동의하며,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믿고 있다.

**질문** 핵협상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태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북한의 협상방식이 최근 변화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 점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답변** 본인도 북한의 협상방식이 변하고 있기를 바라지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북한이 외교관 망명문제와 다른 분야의 협상을 연계시키려 했던 것을 보면, 그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뉴욕에서 4자회담의 진행과 관련된 대화에 응한다든가 예비회담의 재개최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보면 아마도 전술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인은 북한이 기존의 연계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은 다소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어떤 진전이 있을 것

으로 본다. 북한의 협상방식이 변하였다고는 확신할 수 없으나, 본인이 만약 그들이라면 방식을 바꿀 것이다. 왜냐하면, 허세와 책략 그리고 연계를 고집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강하다는 것보다 약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조용하면서도 진지한 협상만이 존경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비록 협상방식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은 북한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생각해보고, 미래지향적이며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는 때가 조만간에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그러한 시기가 올 것인지 여부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질문** 이른바 “개입(engagement)” 정책은 북한을 외부세계에 개방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북한의 실질적 개방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인가?

**답변** 이 질문은 지금 북한 정권이 처해 있는 딜레마를 말해 주고 있다. 북한은 개방을 하지 않으면 경제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방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 반대로 북한이 개방을 선택하였을 경우,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체제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더욱 어렵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와 접촉을 많이 할수록 정치적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의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세계화 과정을 통해 점점 더 밀접해져 가는 세상에서 통제경제 체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다. 즉, 북한의 딜레마는 우리들이나 우리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계사 자체에서 유래한 것이다. 본인은 이 문제를 이론적인 관점에서 논할 필요도 없으며,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 본인을 확신시킬 만한 학술적인 분석도 없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그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다. 본인은 북한이 한반도의 미래를 고려하면서 우리와 함께 외교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만큼, 우리도 북한과 함께 경제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왜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북한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불안정과 위기의 소지를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이 실현될 것에 대비하여 다소 흔들리고 있는 한국과 우방국의 경제를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식적인 수준의 문제이지 학술적 계산이 아니며, 상식에 기초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질문** 미·중관계는 한반도 통일에 아주 중요하다. 미·중관계가 악화되었을 경우, 북한이 급격한 변화나 붕괴에 직면하였을 때 중국은 군사적 개입같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지도 모르며, 이것은 통일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미·중관계에 대한 전망은 무엇인가 ?

**답변** 우선 본인은 미국의 대외정책이 그러한 것처럼, 중국이 한반도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미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국의 이익에 바탕을 두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미·중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북한 핵개발에 관하여 중국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기본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4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회담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초기의 입장에서, 지지한다는 현재의 방향으로 변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불안정이 중국에 이롭지 못하다는 중국 자체의 이익계산 때문일 것이다. 4자회담은 한반도의 안정을 이루기 위한 길이며, 이것은 중국에게도 이익이다. 앞서 질문한 바와 같이 미·중관계가 과거보다 악화되었다면 미래도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실제로 미·중 관계가 2년전 보다 더 나아졌다고 생각한다.